

암도 산재다!

학비노조 직업성 암 찾기 운동



최근 급식직종 조합원의 폐암 산재 건으로
직업성 암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
대두되고 있습니다.

학교에서 근무 후 발병한 암은 개인 병력
아니라 급식실에서 근무하면서 발암요인인
조리훈, 화학약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
직업성 암일 수 있습니다.

본인이나 주변 동료들 중 암으로 투병하거나
사망하신 분의 유족분들은 무료상담을 받을
수 있습니다. 이후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와
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업성 암을 찾아 산재 판정을 통해 급식실
노동환경 개선 근거로 사용하고, 안전하고
건강하게 일 할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.

신청방법

조합원과 퇴직 조합원을 대상으로
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비노조 각 지부
노동안전 담당자에게 제출.

6월 3일 | 대규모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

신청 후 과정

신청서 접수 -> 자문의 검토 후 산재
가능성 판단 -> 노무사 배정 -> 산재
실무 진행

**신청
문의**



02- 847-2006 / 02-490-2091



kctuedub@hanmail.net / nocancer119@gmail.com



카톡오픈채팅 '직업성·환경성암119'



<http://nocancer119.co.kr>



민주노총 서비스연맹

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10th